

# 國內油價

평균 10% 추가인하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국내석유류제품가격을 공장도 가격기준 평균 10.7%, 소비자가격기준 10% 인하했다. 지난 2월 20일의 제 1차 국내油價인하에 이어 이번 2차 인하로 유가는 올해들어 공장도기준 22.25%, 소비자가격기준 20.8%가 내렸다.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油價인하와 함께 1차 인하때 1%에서 5%로 올렸던 원유수입관세율을 12%로 다시 크게 올리고, 배럴당 50센트씩 거두던 석유사업기금징수액도 1달러92센트씩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유종별 인하내용을 보면, 산업용 연료인 B-C油가 소비자가격기준으로 11.2%가 내려 1차 인하때와 마찬가지로 인하폭이 가장 컸고, 휘발유는 보통이 8.1%, 고급이 6% 인하됐다. 또 輕油는 7.2%, 灯油는 8.1%, 重油 9.8%, 일반용 프로판 6.2%, 부탄 7.2%씩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값은 ㄹ당 6백20원에서 5백70원으로, 고급은 8백40원에서 7백90원으로 각각 50원, 灯油는 2백61원에서 2백40원으로, 輕油는 2백48원에서 2백30원으로 내렸으며, 프로판가스는 20kg들이 한통에 1만1천6백원으로 7백60원 인하됐다.

동자부는 이번 유가인하에서 ▲원유도입단가는 지난 3월 도입분의 잠정실적치인 배럴당 18.34달러를 기준으로 종전유가반영분 배럴당 22.89달러와의 차이인 4.55달러를 하락폭으로 하여 ▲55.6%는 이번 유가인하에, 나머지는 석유사업기금 22.6%, 관세 21.8%로 유보하였으며, ▲유종별 가격조정은 산업용 유종인 B-C油와 나프타등은 평균인하율보다 다소 많게, 민생용 유종인 灯油·輕油등은 나머지 재원을 거의 균등배분하는 등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이번 유가조정에서 3월분 원유도입실적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입단가 하락폭중 50%만을 油價인하 재원으로 반영한데 대해 ① 지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이나 계속된 OPEC 임시총회가 油價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국제석유시황의 혼미가 거듭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② 이같은 불안정한 국제시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국내유가도 따라서 불안정하게 하는 것보다 불안정한 시황을 몇단계로 나누어 흡수하는 것이 油價의 안정적 관리를 기할 수 있으며, ③

油種別 價格調整內譯

(원/ℓ, LPG 원/kg)

油種	賣出額構成比 (%)	稅前 公 場 道 價 格			소 비 자 가 격		
		종 전	조 정	인 하 율	종 전	조 정	인 하 율
揮發油(고급)	0.23	353.51	330.78	6.43	840	790	6.0
(보통)	5.76	262.71	239.98	8.65	620	570	8.1
(군용)	0.59	313.15	290.42	7.26	313.15	290.42	7.3
燈油	6.21	213.38	194.29	8.95	261	240.0	8.1
低硫黃輕油(0.4W%)	21.68	189.11	174.10	7.94	251	233.0	7.2
輕油	12.12	186.42	171.41	8.05	248	230.0	7.3
低硫黃輕質重油(1.6W%)	0.21	175.10	157.83	9.86	200.53	181.53	9.5
輕質重油(A)	0.95	171.18	155.94	8.90	196.21	179.45	8.5
低硫黃重油(1.6W%)	0.15	156.33	140.15	10.35	180.07	162.27	9.9
重油(B)	0.42	151.50	136.02	10.22	174.76	157.73	9.8
低硫黃B-C油(1.6W%)	8.53	142.28	125.56	11.75	165.61	147.22	11.10
低硫黃B-C油(2.5W%)	0.04	139.77	123.35	11.75	153.75	135.69	11.8
B-C油	10.55	135.61	119.67	11.0	157.35	139.81	11.2
아스팔트	1.88	179.31	159.59	11.0	197.24	175.55	11.0
프로판(일반용)	0.81	374.27	342.86	8.39	618.0	580.0	6.2
(도시가스)		244.29	221.09	9.50	295.59	267.52	9.5
부탄(일반용)	3.41	372.85	342.27	8.20	513.0	476.0	7.2
(도시가스)		243.35	210.25	13.60	294.46	254.41	13.6
나프타	9.73	124.29	99.07	20.29	136.72	108.98	20.3

국내油價를 한꺼번에 대폭 인하할 경우 에너지源단의 급격한 마찰 및 에너지소비절약기동저해등의 부작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44.4%의 자원중 관세는 원유도입단가와 국내유가하락에 따른 稅收결합분을 다소 여유있게 보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분은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여 이로써 조성되는 자원(석유사업기금 약 1천4백억원·관세 약 1천1백억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를 통해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이득이 국민경제체질강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한편, 향후 국제유가변동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여 원유도입단가가 더 내려갈 경우, 국제유가의 안정수준과 각국의 대응내용등을 감안하되 하락분은 가급적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하여 국제유가변동등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내유가인하로 도매물가 1.45%, 소비자물가 0.079%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石油類製品價格인하조정 (1, 2차 合計)

(단위: 원/ℓ, LPG는 원/kg)

	세전 公 場 道 價 格			소 비 자 가 격		
	종 전	조 정	인하율 (%)	종 전	조 정	인하율 (%)
揮發油(보통)	281.80	239.98	14.8	660	570	13.6
燈油	241.79	194.29	19.7	291	240	17.5
輕油(고유황)	211.60	171.41	19.0	277	230	17.0
B-C油(고유황)	161.44	119.67	25.9	185.76	139.81	24.7
LPG (프로판)	398.97	342.86	14.1	640	580	9.4
	(481.61)		(28.8)	(740)		(21.6)
아스팔트	200.81	159.59	20.5	220.89	175.55	20.5
平 均			22.2			20.8
			(22.8)			(21.8)

(註) LPG ( )는 '86.1.9이전 가격기준시